2025-12-15

HI FX Brief

연고점을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된 외환시장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비둘기파적 12월 FOMC 회의 결과에도 원과 엔은 약세

- 12월 FOMC 회의 결과가 금융시장 우려와 달리 매파적 금리인하보다는 비둘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이 확대됨. 특히,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한 미 연준의 매입 조치, 즉 '지급준비금 관리 매입(RMP)' 조기 시행이 달러화 약세 기대감을 강화시킴
- 유로화는 12월 FOMC 회의 안도감과 더불어 ECB 일부 인사의 26년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 등으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감
- 엔화는 달러 약세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정 리스크 우려 부각 등으로 지난주 약세를 보임
- 역외 위안화는 중국 통화당국의 위안화 속도 조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감.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6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것이 위안화 강세로 이어짐
- 호주달러 역시 강세를 보임. 호주중앙은행(RBA)도 금리 인하 기조에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매파적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 줌
- 달러-원 환율만 유독 약세 폭이 확대됨. 달러 약세,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이 원화 추가 약세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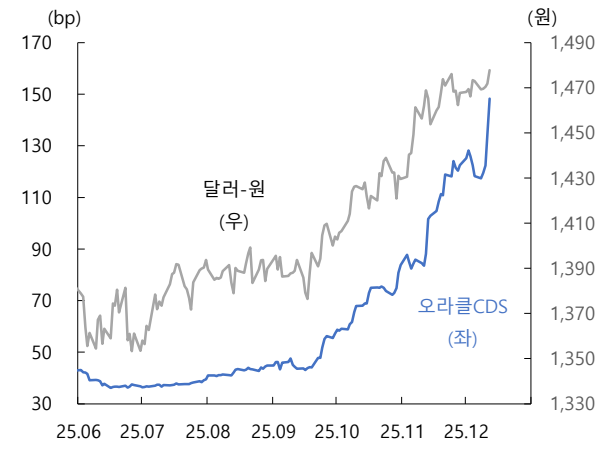
	12월 12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8.4	-0.60	-9.30
유로-달러	1.174	0.84	13.39
달러-엔	155.8	0.31	-0.88
역외 달러-위안	7.05	-0.23	-3.88
호주달러-달러	0.67	0.18	7.50
달러-원	1,477.0	0.25	0.32

달러-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

금주: BOJ회의 결과와 AI 버블 우려 진정 여부가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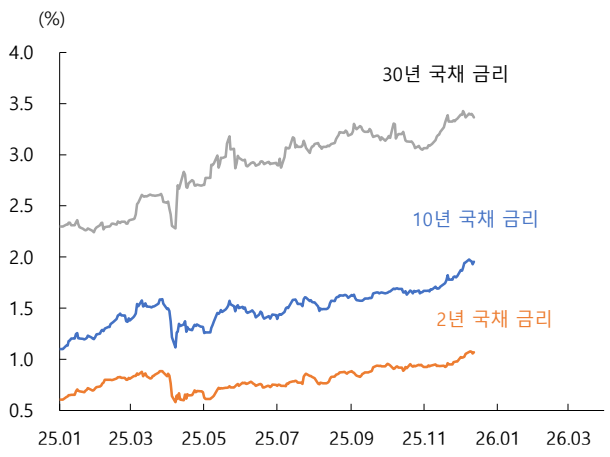
- 18일 ECB 및 19일 일본은행(BOJ)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달러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. ECB가 매파적 시그널을, 일본은행은 12월 금리인상 이후 추가 금리인상 시그널을 시사할지가 주목됨. 이 밖에도 재차 불거진 AI 버블론의 확산 여부도 외환시장이 주목할 이슈임
- 달러-원 환율이 연고점 수준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됨. 금주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AI 버블론 확산 등이 달러-원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전망임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50~1,49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급등하는 오라클 CDS와 달러-원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일본 국채금리 추이: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이후 금리 추이도 외환시장이 주목해야할 변수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